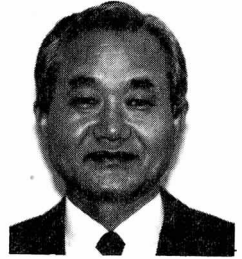


## 만년 셋트 유감



朴 圭 彩

칼라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제작자나 시청자가 한가지로 마음쓰게 되는것이 「실감나는 화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스튜디오 셋트의 노출이 없게 되기를 바라게 된다. 하기야 스튜디오 셋트의 노출썸이야 다 감안하여 시청할 수 없는바 아니지만 사람들의 요구는 좀 더 자연스런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민들은 텔레비전 화면에서나마 자연적 정서에 접하고 싶어 한다. 근간에 우리 방송에서도 자연(自然)에 대한 다큐멘타리를 많이 제작하여 방송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추세를 보아도 텔레비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요청이 어떠한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 드라마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이른바 야외촬영이라는 것을 해서 화면에 현장감을 높이려고 한다.

물론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야외 촬영을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요구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나라 방송시설에 있어서 셋트의 규모와 내용(종목)이 넓지 못하다는 취약점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뭏든 야외촬영을 많이 하게 될수록 방송사로서는 인력문제와 제작비의 가중을 불구해야 하고, 출연자 들로서도 고역과 고충을 겪어야 하는 것임에도 최근 들어 야외촬영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겠다.

그런데,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외촬영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야외 촬영을 다니다 보면 그야 말로 자연스런 촬영장소가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더구나 나는 국립공원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이런 때 느끼는 감회가 우리 국토의 자연공원화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

자연공원이란 도시공원(시설공원)과 달리 자연 본위의 공원, 즉 자연을 주로 하여 그 자연을 잘 보존 하기 위한 공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공원(시설공원)은 사람의 휴식과 오락공간으로 한 시설을 위주로 하지만, 자연공원은 아름다운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자연공원 지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되도록 원상대로 보존된 자연이 많을수록 그 공원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비단 자연공원 뿐만 아니라 비록 비자연으로 여겨져야 할 사적지, 성역, 문화재가 있는 곳 등 유적지는 물론이고, 이른바 민속적(民俗的)특색이 있는 곳 같은 곳들도 자연보존적인 차원에서 보호되어 국토의 자연공원적 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는 야외촬영을 다니면서 절감하곤 한다.

본래, 자연보존이라는 개념 속에는 인공적으

로 만들어진 문화 유적과 역사적인 경관(景觀)도 자연보호의 테두리안에 놓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연자원의 보존과 국토의 보존, 문화재, 사적등 역사적인 자연 보존 등이 자연보호 운동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렇게 자연보존을 역설 하는고 하면 위에서 말했듯이 야외촬영을 하게 될때 늘 아쉬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어떤 신문을 보니까 “야외 촬영장소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기에 봤더니, 결국 우리들이 평소 늘 아쉬움과 불만스러움이 있던 문제를 다룬 기사였다.

즉 텔레비전 드라마 특히 시대극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이 당시 풍물이 있는 야외촬영 장소를 구하는 일이라는 얘기다.

“초가집이 원형대로 남아 있는 곳이 없어 전국을 누비며 산골의 버려진 외딴집을 찾노라 장뿔뽕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기에 이런경우 우리가 거의 단골로 야외 촬영 나가는 곳이 용인군 기흥면에 있는 이른바 「한국민속촌」이다. 하루 거기서만 촬영하다시피 하니까 이젠 시청자들도 그 시대극에서 느껴야할 실감 보다는 아는 「민속촌」이라는 점에 더 인지감(認知感)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아마도 「한국민속촌」은 MBC와 KBS 그리고 영화사 들의 「만년셋트」에 해당하지 않

을까 생각 된다. 사실 한국민속촌은 셋트 이상 일수가 없을 것이다.

거기서 우리의 자연성, 자연스런 민속성을 실감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어찌 민속촌 뿐이라. 사찰들 마저 시멘트 구조물들로 일색을 이루어 가는 추세 속에 어디서 자연성(自然性)을 실감 할 데가 있으랴 싶다.

우리나라의 자연보호현장에 보면,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존이 우선 되어야 한다”(제4장)라고 규정 했고, 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존 되어야 한다”(제2장)라고 표명 하고 있다.

자연 보존이란 비단 자연환경의 보존만이 아니라 민속자료나 문화유적 까지도 자연보존의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야외촬영을 다니면서 이와 같은 자연 보존의 필요성을 절감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야외촬영을 하고자 할때 찾아갈곳이 얼마든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곳에서 야외촬영을 하여 방영 하면, 시청자들이 그때마다 자연성을 실감하고 정서감의 만족을 느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싶은 것이다.

[筆者·텔런트·汝矣島放送文化院長·本會代議員]

## 최초의 山林博物館 준공

### 百50萬坪의 光陵樹木園도

우리나라 최초의 산림박물관과 최대규모인 수목원의 준공식이 4월 4일 현지에서 열릴예정이다. 鄭埰鎭산림청장에 의하면 경기도 抱川郡 光陵시험림에 조성될 수목원은 총 5백ha(150만평)의 면적에 침엽수,

활엽수, 외국수목, 식용식물, 난대식물, 盲人식물원등 15개식물원과 정원으로 구분하여 총 1천 7백16종의 수목과 1천 59종의 초분류가 심어진다.